

도시부부의 배우자 선택 요인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사회교환이론적 관점에서 —

The Effects of Mate Selection Factors on the Marital Satisfaction
among the Urban Couples : A Social Exchange View

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학과 대학원

이 경 애

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학과

부교수 조 병 은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Student : Lee, Kyung Ea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 of Education

Associate Prof. : Cho. Byung Eun

〈 목 차 〉

I. 문제 제기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결과 및 해석

V.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 Abstract 〉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homogeneity in premarital resources that is exchanged in mate selection and its effect on marital satisfaction among the urban couples in the early period of marriage. Structured questionnaires from 310 urban couples who had been married less than three years were analyzed in this study.

First, the urban couples tended to seek homogamous selection in age, educational level, religion, birthplace, and growthplace, while they tended to seek exogamous selection in socioeconomic status of the parents and themselves.

Second, those who had a spouse from his(her) own religious,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showed higher level of marital satisfaction than those who had not. The rewards from personal traits, such as physical attractiveness, gender-role identity, personality, role-expectation, value orientation and perceived reward, found to have strong and positive associations with marital satisfaction. Parental approval and semi-arranged marriage were associated with marital satisfaction.

Third, perceived rewards from these resources and parental approval had significant effects on marital satisfaction; almost half of marital satisfaction was explained by these premarital factors.

I. 문제 제기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에 유교적 가치의식이 대두되면서 가부장적 가족이 형성되어 개인보다 가족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결혼도 가문과 가문의 결합에 더욱 중점을 두었고,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도 신분적으로는 내혼을, 혈연적으로는 외혼 규범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의 권한에 의해 결정되고 수행되었다(최재석, 1983). 이러한 이유때문에 그동안 배우자 선택이나 결혼 그 자체는 중요시 되지 않았고, 가족 사회학의 직접적 연구 대상이 되지 못해왔다(김혜선, 1991). 그러나 근대화·도시화에 의해 가족 형태가 핵가족화되고 부모나 가중심의 배우자 선택이 개인 중심의 선택으로 변화하면서 배우자 선택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1980년 이후 배우자 선택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몇몇 연구(김혜선, 1992; 정기원·이상영, 1992)를 제외한 대다수가 결혼관(윤달원, 1978; 고순자, 1981; 이은숙, 1982; 정현아, 1984; 강호철, 1984; 김경숙, 1985; 홍준숙, 1987) 및 배우자 선정 조건이나 태도(정영, 1981; 이용문, 1982; 김혜선·김영희, 1983, 1984, 1986, 1988; 백남희, 1986) 등을 실태 조사한 이상적이고 제도론적인 연구에 국한되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이 가지는 제한점 가운데 한 가지는 미혼 남·녀 대학생들 중심으로 한 추상적이고 이념적인 태도 파악에 그치고 있어 배우자 선택의 실제적·경험적 양상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South, 1991; 김혜선, 1992). 또 다른 제한점은 배우자 선택이 결혼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사회

적 제약이 많지 않아 배우자 선택에서 뿐만 아니라 결혼 후까지도 개인의 보상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안을 추구할 수 있는 서구 문화에서는 결혼 전 요인보다는 결혼 후 부부 관계의 불일치나 불만족이 결혼 만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Adams, 1979; Nye, 1980). 그러나 개인보다 가족과 규범적 기준에 더 영향을 받는 문화에서는 이혼에 대한 제약이 많아 결혼을 영속적인 제도로 여기게 되고, 결혼의 질 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하므로 결혼 전 요인들의 적합성과 보상이 결혼 후의 만족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Lee et al, 1980). 결혼의 영속성, 안정성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우리나라에서도 결혼 전 자원이 배우자 선택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되며, 배우자 선택 요인이 결혼만족에 끼치는 영향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여겨진다. 국내 연구에서 부부의 동질성이나 유사성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나(이동원, 1988; 강은영, 1989; 김비숙, 1990; 정기원·이상영, 1992), 결혼 후 사회인구학적 변인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배우자 선택시 교환되는 결혼 전 자원과 결혼만족도와 직접적 관계를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서구 여러나라에서는 배우자 선택에 관한 이론화 시도 및 실증적 검증이 지속되고 있으며, 사회교환이론의 관점에서 동질혼과 이질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Surra, 1990; South, 1991). 사회교환이론은 결혼시장에서 상호 자원을 교환할 때 그들을 위해 보상할만 하다고 인지된 능력과 자신이 인지한 보상 능력이 같은 사람과 사귀려는 경향 즉, 동질성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설명하였으며, 동등한 교환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남성의 권력과 여성의 아름다

움과 같이 상반된 자원이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 보상이 높을 때 더욱 관계에 만족하게 된다고 하였다(Nye, 1979; 김명자, 1991).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배우자선택이론을 기초로 한 연구(이선주, 1988; 김혜선, 1992)는 소수에 불과하고, 동질혼 실태를 파악한 연구(박미해, 1991)도 거의 없다. 내혼·외혼 규범이 완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완전한 자유혼이 아니고 절충혼을 선호(고순자, 1981; 강호철, 1984)하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이론을 선택하여 검증해 보는 것은 우리나라에 적합한 배우자선택이론의 발달과 실증적 검증을 위해 중요한 시도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는 도시부부를 대상으로 배우자 선택시 교환되는 결혼 전 자원의 동질혼 실태를 파악하고, 자원의 동질성과 보상이 왜 그리고 어떻게 배우자 선택과 결혼만족에 영향을 주는지가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회교환이론적 관점에서 배우자 선택 요인의 동질성과 보상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고자 한다. 최근 결혼 초기의 관계 해체가 전체의 12.9%나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므로(통계청, 1991), 결혼초기 도시부부들의 결혼만족을 보다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관련 변인으로 결혼 전 자원이 결혼만족도에 끼치는 영향을 탐색해 봄으로써 만족한 결혼생활을 예측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교환론적 관점에서의 배우자 선택과 결혼만족도

사회교환개념은 배우자 선택의 초기 단계부터 파트너가 되기까지 친밀한 관계의 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는데 사용되어 왔다(Murstein, 1980; Surra, 1990; South, 1991). 월러(Waller, 1937)는 사회교환이론적 관점에서 남녀 교제 행위를 이성적이며 계산된 행위로 보고, 배우자 선택은 결혼 시장에서 개인이 지닌 물질적·비물질적 제반 자원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자신에게 최대의 보상을 줄 수 있는 배우자를 선택

하고자 하며 자원의 질과 양이 상호 평형을 유지할 때 동등한 결합으로 여긴다고 하였다. 사회 교환 원리에서 보상과 대가는 객관적 공정성(Equity)과 균등성(Equality)보다도 주관적 평가 즉, 파트너의 자원에 대해 자신이 인지한 보상이나 대가가 더욱 중요하며 절대적 보상수준이 높다고 인지할 때 가장 만족한다고 한다(Murstein et al 1977; Cate et al, 1988; Surra, 1990). 또한 규범은 사회적 자원으로써 규범을 수용하는 것은 보상으로, 규범으로부터 이탈은 대가로 작용하므로 자신이 선택한 대안이 그가 속한 집단 구성원에게 대가를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여겼을 때는 자신에게 당장 이익이 되는 선택을 억제하게 된다고 하였다(Nye, 1980; 한경혜, 1990). 배우자 선택에서 부모의 반대가 관계의 지속과 발달을 방해한다(Adams, 1979; Surra, 1990)는 결과는 가족 규범 이탈에 대한 대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많은 연구에서 연령, 사회계층, 종교, 교육수준 등은 동질혼 경향임을 확인해 왔다(Mathes, 1975; Atkinson, 1985; 박미해, 1991; Heaton et al, 1991). 동질혼을 추구하는 이유로는 자신과 유사한 자원을 교환함으로써 얻는 만족감과 유사한 가치, 생활경험,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을 심리적으로 선호하며 동질혼을 추구하도록 하는 사회적 규범이나 부모·동료로부터의 압력 등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한다(Lee, 1988; Schoen, 1980). 다시 말하면, 배우자 선택은 상호 호혜성 교환법칙이 작용하여 동질적 결혼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동질혼은 개인적·사회적·심리적 보상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김양희, 1992). 사회교환이론 관점에서 결혼 전·후 요인과 결혼만족도와 관계를 연구한 루이스와 스페니어(Lewis & Spanier, 1979)는 부부의 동질성이나 개인의 결혼생활에 유용한 결혼 전 자원이 많을수록 결혼의 질이 높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는 결혼 전 자원을 결혼 후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일부분으로 다루고 있으며, 연령 차이가 적을수록, 학력 차이가 적을수록, 종교가 일치할 때, 남편의 수입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고 제시하였다(이동원, 1988; 강은령, 1989; 이미숙, 1989; 김미숙, 1990). 그러나 이상의 연구에서는 결혼 후 요인에 더 중점

을 두었으므로 결혼 전 요인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파악하는데 제한점을 갖는다. 따라서 결혼 전부터 형성되는 부부 자원의 유사성 및 보상이 결혼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이해는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2. 관련 변인에 대한 고찰

여러 선행연구(Lewis & Spanier, 1979; Adams, 1979; Murstein, 1980; 정기원 · 이상영, 1992)에서 연령, 교육수준, 종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출생지, 신체적 매력, 부모의 지지, 성격 및 가치관, 역할기대, 주관적 만족 등을 배우자 선택의 교환자원으로 보고 있다. 사회교환이론적 관점에서 자원의 교환과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연령은 배우자 선택시 기본적으로 고려되는 자원이며, 여성은 나이가 적은 경우 남성은 나이가 많은 경우 보상이 된다고 하였다(Murstein, 1980). 우리나라 도시부부의 평균 연령차는 3.1세로 나타났고(신혜성, 1988), 미혼 남녀는 남성이 3-4세 연상일 경우 이상적인 연령차로 여기고 있다고 보고하였다(고순자, 1981; 강호철, 1984; 백남희, 1986; 홍준숙, 1987; 이효재, 1993). 부부의 연령 차이에 따른 만족도는 연령차가 적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보고(정기원 · 이상영, 1992)와 연령과 결혼만족도와는 관련이 없다(이선주, 1988)는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교육수준은 미래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직업이나 수입을 예견할 수 있는 자원으로(Schoen, 1988; Makosky, 1988), 최근 교육 계층의 동질혼이 증가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며(박미해, 1991), 부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의사소통의 비율이 현저히 증가한다고 하였다(정기원 · 이상영, 1992). 전통적으로 기독교나 천주교에서는 동질혼이 강한 규범으로 존재해 왔지만, 최근 연구에 의하면 배우자 선택시 종교의 일치는 더이상 유의한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한다(York, 1979; Jones, 1979; Glenn, 1984; Lee, 1988, South, 1991). 반면에 종교가 일치할 때 결혼만족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선주, 1988; 강은령,

1989; 정기원 · 이상영, 1992).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전통사회에서는 통혼의 첫째 조건이었으나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의 문화적·지적 수준을 나타내는 요인으로만 고려되는 경향이라고 하였다(이효재, 1993). 한편, 계층 이질혼을 할 경우 부부간 갈등과 충돌의 빈도가 높았는데 역할기대, 가치관의 불일치, 표현적 의사소통의 결여로 인하여 상호 호혜적 교환만족이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Jorgensen, 1973). 여성은 자신의 신체적 매력을 남성의 사회·경제적 자원과 교환함으로써 지위 향상을 추구하고, 남성은 그들의 지위가 여성의 매력으로 강화되기를 원한다고 한다(Mathes, 1975; McKenry, 1984). 그러나 여성이 직업과 수입을 가질 수 있게 되면서 높은 교육수준, 성격, 가치관을 더 선호하고(Wooldredge et al, 1989; 한국궤립조사연구소, 1993), 남성은 여성의 직업과 수입을 고려하며 부인의 수입이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Surra, 1990; Kim, 1992)를 볼 때 신체적 매력과 사회·경제적 자원에 대한 남녀의 태도 변화를 파악하고 설명할 수 있는 연구가 요망된다. 결혼관의 연구에서 보면, 부모는 자녀의 결혼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자녀는 부모의 의사에 따르려는 의존적인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정현아, 1984; 안해옥, 1987; 김혜선 · 신양재, 1988). 또한 부모의 허락과 지지를 받고 결혼한 부부는 그렇지 못한 부부보다 결혼 초기에 더 행복하고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이선주, 1988), 연애훈이나 절충혼을 한 부부가 부모에 의한 중매혼을 한 부부보다 결혼지속기간에 관계없이 결혼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강은령, 1989; Xiaohe et al, 1990). 교환이론에 근거하여 보면 성격 및 가치관의 일치는 보상이 되며(Nye, 1980; 김명자, 1991), 긍정적 성격의 소유자는 결혼만족도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한편 성별에 따라 여성성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여성이 여성성일 경우 결혼만족도가 낮았고, 남성이 여성성일 경우 결혼만족도가 높았다(Schaupp et al, 1986). 양성성의 경우 결혼만족도를 높인다는 보고가 있으나(김명순 · 이주옥, 1988) 미분화와 남성성 보다는 영향력이 크지만 여성성과는 차이가 없게 나

타났고, 양성성이 미분화 이외의 여성성이나 남성성보다 전반적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증거는 제시되지 못했으므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결혼 후 성역할 가치관에 있어서 남녀에 대하여 평등지향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부부는 결혼만족도가 높았으며, 남편이 전통적인 가치관을 지닌 경우 부인의 결혼만족도는 유의하게 낮았다(강은령, 1989; Kim, 1992). 또한 머스테인(Murstein, 1980)은 역할기대에 대한 일치와 적합성 단계를 통과하게 되면 결혼이 성립된다고 하였고, 우리나라 연구에서는 결혼 전 역할의 일치도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하고 있으므로(김혜선, 1992), 결혼 전의 성격 및 가치관 일치와 역할기대의 적합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아담스(Adams, 1979)는 지리적 근접성을 교제 형성을 위한 일차적 요인으로 보았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출생지 이질혼이 증가한다고 밝혔다(김용학·김진혁, 1990). 출생지와 결혼만족도를 관련시킨 연구에서는 출생지 동질성이 결혼만족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준다(정기원·이상영, 1992)는 결과와 영향이 없다는(이선주, 1988)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재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상에서는 객관적 자원의 교환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으나, 교환이론에 근거하면 객관적 자원의 동질성과 보상 뿐만 아니라 개인이 인지한 주관적 보상이 더 중요하다고 하고 있으므로 결혼전 자원에 대한 객관적 보상과 주관적 보상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검토해 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이상의 여러가지 배우자 선택과 관련된 자원의 선행 연구를 살펴본 결과 제반 동질적 요인들과 보상 요인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실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결혼 전 자원의 동질성 및 보상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사회교환이론적 관점에서 규명해 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사회교환이론적 관점에서 결혼 전 자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우리나라의 도시부부가 배우자 선택 시 교환하는 결혼전 자원의 동질성 실태를 파악해 본다.

[연구문제 2] 교환되는 자원의 동질성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가를 알아본다.

<가설 1> 연령이 비슷할수록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는 높을 것이다.

<가설 2> 교육수준이 비슷할수록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는 높을 것이다.

<가설 3> 종교가 같을때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는 높을 것이다.

<가설 4>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비슷할수록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는 높을 것이다.

<가설 5>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비슷할수록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는 높을 것이다.

<가설 6> 출생지가 같을때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는 높을 것이다.

[연구문제 3] 교환되는 자원의 보상이 많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가를 알아본다.

<가설 7> 남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부인의 결혼만족도는 높을 것이다.

<가설 8> 부인의 외모가 매력적일수록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높을 것이다.

<가설 9> 부모의 지지가 많을수록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는 높을 것이다.

<가설 10> 성격과 가치관이 일치할수록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는 높을 것이다.

<가설 11> 결혼 전 배우자에 대한 역할기대의 적합성이 높을수록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는 높을 것이다.

〈가설 12〉 주관적으로 인지한 보상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는 높을 것이다.

[연구문제 4]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혼 전 변인을 알아본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은 결혼 3년 이내, 자녀수 1명 이내의 도시부부를 대상으로 의도적 표집을 하였다. 결혼 전 요인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회상법을 이용하여 파악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결혼지속기간이 길 경우 배우자 선택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회상이 어렵고, 부부의 결혼만족이 결혼 후 요인들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양명숙, 1991; 정기원·이상영, 1992)하고 있으므로 결혼지속년수와 자녀수를 제한하였다. 본조사는 1993년 8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서울시와 서울 근교인 경기 일부지역에 거주하는 결혼 3년 이내의 부부 480쌍을 대상으로 직접 혹은 우편을 이용한 질문지법을 실시하였다. 회수된 질문지는 358쌍(716부)이었고, 부실기재된 48부를 제외시키고 총 310쌍(620명)을 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

3. 변인들의 정의 및 측정도구

(1) 동질성의 범위

연령¹⁾은 남편이 연상이면서 남편과 부인의 연령차

가 3세 이내일 경우 연령 동질혼으로, 남편이 부인보다 4세 이상이거나 부인이 남편보다 연상일 경우 연령 이질혼으로 본다. 교육수준의 동질혼은 고등학교나 전문대 졸업자가 고등학교나 전문대 졸업자와, 대학 졸업자가 대학 졸업자와, 대학원 졸업자가 대학원 졸업자와 결혼한 경우로 본다. 종교의 동질혼은 기독교인과 기독교인, 천주교인과 천주교인, 불교인과 불교인, 무종교인과 무종교인이 결혼한 경우로 본다. 부모의 ²⁾사회·경제적 지위는 ³⁾부모의 직업과 ⁴⁾결혼전 사회·경제적 수준을 곱하여 상류 25%, 중류 50%, 하류 25% 세 집단으로 분류한 다음 상류와 상류, 중류와 중류, 하류와 하류가 결혼한 경우 동질혼으로 본다.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본인의 직업과 ⁵⁾월평균 수입을 곱하여 상위 25%, 중위 50%, 하위 25% 세 집단으로 분류한 다음 상위와 상위, 중위와 중위, 하위와 하위가 결혼한 경우 동질혼으로 본다. 출생지는 같은 시나 도의 사람끼리 결혼한 경우 출생지 동질혼으로, 성장지는 부부 모두 도시인 경우 또는 부부 모두 읍·면 지역이나 농·어촌인 경우 성장지 동질혼으로 본다.

(2) 성격 특성과 가치관

본 연구에서는 여러 성격 특성 중 긍정적 성격과 성역할 정체감을 측정하였다. 긍정적 성격은 앨버트 팀(Albert et al, 1991)이 사용한 단축형 APRS를 변안하여 사용하였다. 성역할 정체감은 단축형 BSRI를 한글로 변안한 정옥분(1986)의 질문지를 사용하였

- 1) 연령 동질혼의 정의는 신혜성(1988)과 정기원·이상영(1992)의 인구 센서스 조사 결과와 이효재(1993), South(1990)의 보고를 근거로 하였다.
- 2) 본 연구의 계층 구분은 연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점수에 따라 분류하였으므로 전국 표본의 상, 중, 하 계층과 일치하지 않음을 밝혀둔다.
- 3) 부모의 직업과 본인의 직업은 홍두승(1983)의 연구를 참조하여 구분하였다. 무직에서 전문직까지 10단계로 분류하였고, 무직은 1점, 일일고용직은 2점, 농업 종사자는 3점, 피고용 기술자는 4점, 자영업 종사자는 5점, 일반 사무직 종사자는 6점, 하급 공무원이나 회사원은 7점, 전문 기술직 종사자는 8점, 관리자 종사자는 9점, 전문직 종사자는 10점을 주었다.
- 4) 결혼 전 사회·경제적 생활수준은 하류에 1점, 중하류에 2점, 중상류에 3점, 상류에 4점을 주었다.
- 5) 소득수준은 하위 소득계층부터 10등급으로 나누었다. 수입이 없는 경우 1점, 30만원 미만은 2점, 30-49만원은 3점, 50-69만원은 4점, 70-89만원은 5점, 90-109만원은 6점, 110-129만원은 7점, 130-149만원은 8점, 150-169만원은 9점, 170만원이상인 경우 10점을 주었다.

다. 가치관은 김일명·김명자(1989)의 “기성세대와 대학생의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 비교연구”에서 사용한 성역할 태도 가치관 척도를 이용하였다.

(3) 역할기대의 적합성 및 결혼만족도

역할기대 척도는 최규련(1988), 서광희(1992)의 결혼한 부부의 역할평가 척도를 결혼 전의 역할기대의 적합성 개념으로 재정의하여 이용하였다. 결혼만족도는 최규련(1988)이 재구성한 로쉬 팀(Roach et al, 1981)의 MSS를 사용하였다.

(4) 주관적 만족(perceived reward)

주관적 만족은 결혼 전 배우자와의 연령차, 배우자의 교육수준, 출생지, 배우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배우자의 직업 및 수입, 배우자의 종교, 배우자의 외모, 성격, 가치관과 역할기대, 부모님의 태도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인지한 만족 정도를 측정하였다.

(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빈도, 백분율, t-test, 요인분석, GLM 분산분석, Duncan's Multiple-Range test, 공분산분석(ANCOVA), 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피어슨 적률상관계수, 분산확대요인(VIF)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한 통계처리는 SAS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객관적 자원의 동질혼 경향

[연구문제 1] 결혼전 자원들의 동질성 실태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령은 64.2%가 동질혼, 35.8%가 이질혼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도시 부부는 연령 동질혼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교육수준은 57.4%가 동질혼, 42.6%가 이질혼으로 나타났으

며, 대학 동질혼이 전체의 46.8%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종교의 동질혼은 64.8%, 이질혼은 35.2%이고, 기독교의 동질혼이 21.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동질혼이 43.0%, 이질혼이 57.0%,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동질혼은 33.5%, 이질혼은 66.5%로 나타났다. 출생지의 동질혼은 52.9%, 이질혼은 47.1%, 성장지의 동질혼은 72.9%, 이질혼은 27.1%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 볼 때, 연령, 교육, 종교, 출생지, 성장지는 동질혼을 추구하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남편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이질혼을 수용하는 경향임을 알 수 있다.

2. 동질성에 따른 결혼만족도

[연구문제 2]⁶⁾ 동질혼과 이질혼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가설>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설 1>의 검증 결과, 연령 동질혼과 이질혼 두 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설 2>의 교육수준에서도 동질혼과 이질혼의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연령, 교육수준에 따라 결혼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연령 이질혼의 경우 연령차가 그다지 많지 않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또는 연령이나 학력 차이에서 느끼는 대가는 다른 자원의 보상이 이를 상쇄시켰을 가능성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가설 3>에서는 종교 동질혼을 한 경우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나($t=2.14$, $p<.05$), 선행 연구(강은령, 1989; 정기원·이상영, 1992)와 일치하고 있는데 부부의 종교가 같을 경우 대화와 여가 활동 및 가치관, 생활 태도 등이 일치함으로써 친밀감이 증대되어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가설 4>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서는 동질혼 집단이 이질혼 집단보다 부인과 남편 모두 결혼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부인 $t=1.63$ $p<.05$, 남편 $t=2.33$ $p<.01$). 이는

6) 본 연구에서 분석된 사회인구학적 특성, 동질성, 동질성의 하위변인, 보상 변인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표>와 <결과>를 지면관계상 다 제시하지는 못하였으므로 본 논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란다.

〈표 1〉 객관적 자원의 동질혼 경향

(N=310)

배경변인	부인 - 남편	빈도	백분율(%)	동질혼/이질혼	
				누적빈도	누적백분율
연령	동질혼 3세이내	199	64.2	199	64.2
	이질혼 4세이상	100	32.3		
	부인연상	11	3.5		
교육수준	동질혼 전문대이하 - 전문대이하	17	5.5	178	57.4
	대학교졸 - 대학교졸	145	46.8		
	대학원졸 - 대학원졸	16	5.2		
	이질혼 기 타	132	42.6		
종교	동질혼 기독교 - 기독교	66	21.3	201	64.8
	천주교 - 천주교	16	5.2		
	불교 - 불교	13	4.2		
	무종교 - 무종교	106	34.2		
	이질혼 기 타	109	35.2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동질혼 상류 - 상류	30	9.8	132	43.0
	중류 - 중류	84	27.4		
	하류 - 하류	18	5.9		
	이질혼 기 타	175	57.0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동질혼 상위 - 상위	26	8.4	104	33.5
	중위 - 중위	63	20.3		
	하위 - 하위	15	4.8		
	이질혼 기 타	206	66.5		
출생지	동질혼 동일지역	164	52.9	164	52.9
	이질혼 다른지역	146	47.1		
성장지	동질혼 도시 - 도시	205	66.1	226	72.9
	농촌 - 농촌	21	6.8		
	이질혼 기 타	84	27.1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다를 경우 역할기대, 가치관의 불일치, 의사소통의 부족으로 인하여 교환 만족이 충족되지 않아 결혼만족도가 낮다는 연구(Jorgensen, 1973)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가설 5〉의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서는 이질혼의 경우 부인의 결혼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t = -2.19 p < .01$). 이질혼 하위집단에서는 남편이 부인보다 지위가 높을수록 부부 모두 결혼만족도가 높았고 부인이 비취업 여성일 때 부인과 남편 모두 결혼만족도가 가장 낮았다(부인 $F = .93 p < .05$, 남편 $F = .93 p < .05$). 이는 여성은 남성에게 도구적 역할을, 남성은 여성에게 표

현적 역할을 기대하므로 남편이 부인보다 지위가 높을 때 보상이 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동시에 여성의 취업이 남성에게 보상이 됨을 시사해 주고 있다. 〈가설 6〉에서는 출생지의 이질혼이 동질혼 보다 부인과 남편 모두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부인 $t = -1.07 p < .05$, 남편 $t = -1.78 p < .05$), 출생지의 동질성은 결혼만족도를 증가시킨다는 정기원·이상영(1992)의 보고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한편 성장지에 따라서는 결혼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가설 검증 결과를 볼 때 〈가설 4〉는 지지되었고, 〈가설 3〉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으며,

〈가설 1〉, 〈가설 2〉, 〈가설 5〉, 〈가설 6〉은 지지되지 않았다.

3. 보상 변인에 따른 결혼만족도

[연구문제 3] 교환되는 자원의 보상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가설〉에 따라 살펴보면, 〈가설 7〉에서의 남편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보상은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8〉의 신체적 매력에서는 남편과 부인이 모두 매력적일 경우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부부 모두 매력이 적은 경우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며(부인 $F=6.64$ $p<.0001$, 남편 $F=4.19$ $p<.01$), 부인의 신체적 매력에 따라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증가하였다($p<.001$ $R^2=.63$). 〈가설 9〉의 부모의 지지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 검증 결과, 남편과 부인 모두 시대이나 친정 부모가 찬성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으며, 보통이거나 반대하는 경우 결혼만족도가 낮았다. 특히 시대부모의 찬성 여부는 남편의 결혼만족도에(부인 $F=2.58$ $p<.05$, 남편 $F=10.3$ $p<.0001$), 친정 부모의 찬성 여부는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부인 $F=11.7$ $p<.0001$, 남편 $F=3.38$ $p<.05$). 이상의 결과는 부모의 지지를 받고 결혼한 경우 만족도가 높다는 보고와 일치한다(이선주, 1988). "결혼 유형은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연애 절충혼을 한 경우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중매혼을 한 경우 가장 낮았다(남편 $F=5.75$ $p<.001$). 절충혼이 가장 많은 비율(82.2%)을 차지하고 있고 절충혼을 한 경우 결혼만족도가 높은 결과는 부모의 지지가 자녀의 배우자 선택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결혼 후 부부의 만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가설 10〉에서의 성격 특성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를 검증한 결과, 부인과 남편 모두 긍정적인 성격일 때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둘 다 부정적인 성격인 경우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부인 $F=9.83$ $p<.0001$, 남편

$F=5.97$ $p<.001$). 흥미로운 것은 부인의 결혼만족도에는 부인의 성격이, 남편의 결혼만족도에는 남편 자신의 성격이 더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성격할 성격 특성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전반적 경향을 분석해 보면, 부인이 여성성의 성격일 때와 부인과 남편이 둘 다 여성성 또는 양성성일 경우 비교적 결혼만족도가 높았으며, 부인과 남편이 남성성의 성격일 때 가장 낮았다(부인 $F=1.62$ $p<.05$, 남편 $F=1.13$ $p<.05$). 정서적 기능이 중요시 되는 현대 가족에서는 여성성이 만족도 증가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여겨지며, 양성성도 결혼만족도와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혼 전의 가치관은 남편의 가치관이 근대적이고 부인이 전통적일 때와 부부가 모두 근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 결혼만족도가 높았으며, 남편이 전통적이고 부인이 근대적일 때 결혼만족도는 가장 낮았다(부인 $F=6.24$ $p<.001$, 남편 $F=6.65$ $p<.0001$). 이러한 결과는 남녀에 대하여 평등지향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부부는 결혼만족도가 높고, 남편이 전통적인 성격할 가치관을 지닌 경우 부인의 결혼만족도는 유의하게 낮다(강은령, 1989; Kim, 1992)는 결혼 후 가치관에 대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전통적으로 기득권을 가진 남편이 역할의 융통성을 보일 때 일반적인 경향이 남편보다 더 근대적 성향을 보이는 부인과 역할갈등의 소지가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해석(최규련, 1990)과 의견을 같이 할 수 있다. 이처럼 성격이나 가치관은 일치, 불일치 여부보다 보상이 되는 성격이나 가치관이 결혼만족도와 더 정적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설 11〉의 결혼 전 역할기대의 적합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부인과 남편 모두 배우자에게 역할기대의 적합성이 높을수록 자신의 결혼만족도가 증가하였으나(부인 $p<.01$ $R^2=.035$, 남편 $p<.001$ $R^2=.05$) 설명력이 낮아 영향력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가설 12〉의 개인이 인지한 주관적 만족은 결혼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만족이 높을수록 부인과 남편의 결혼만족도

7) 본 연구에서는 결혼 유형 중 절충혼의 경우 자신의 선택 후 부모님의 승낙을 받아 결정한 경우 연애 절충혼으로, 부모의 소개 후 당사자끼리 합의하여 결정한 경우 중매 절충혼으로 명명하였다.

는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특히 부인의 주관적 만족은 부인의 결혼만족도에(부인 $p<.0001$, 남편 $p<.01$, $R^2=.458$), 남편의 주관적 만족은 남편의 결혼만족도에(부인 $p<.001$, 남편 $p<.0001$ $R^2=.397$)에 더 영향을 주고 있다. 이상의 가설 검증 결과, <가설 7>은 지지되지 않았고 <가설 8>, <가설 9>, <가설 11>, <가설 12>는 지지되었으며 <가설 10>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4. 객관적 자원과 보상 변인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연구문제 4] 부인과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혼 전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공분산 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각 변인들 간에 상관관계가 비교적 낮았으며 분산확대요인이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혼 전 변인은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인의 주관적 만족이며, 남편의 주관적 만족, 친정부모의 지지정도, 결혼 유형과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순이고, 위의 5개 변인은 부인의 결혼만족도의 49.5%를 설명하고 있다.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혼 전 변인은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편의 주관적 만족이었으며,

결혼 유형, 부인의 주관적 만족, 출생지, 시댁부모의 지지정도 순이고, 위의 5개의 변인은 결혼만족도의 46.2%를 설명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부인과 남편의 주관적 만족이며 다음으로 부모의 지지와 결혼 유형임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결혼초기 도시부부의 배우자 선택시 교환되는 결혼 전 자원의 동질성을 파악하고, 사회교환이론적 관점에서 결혼 전 자원의 동질성과 보상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시와 경기도 일부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지속년수 3년 이내, 자녀가 없거나 1명인 도시부부 310쌍(6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문제와 가설을 중심으로 조사 분석한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결혼초기 도시부부는 연령, 교육수준, 종교, 출생지, 성장지의 동질혼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어서는 이질혼을 수용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2. 객관적 자원의 동질성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에 있어서 종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동질혼을 한 경우 결혼만족도가 높았고, 개인의 사회·

<표 2>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요인의 공분산 분석 결과

(N = 309)					
독립변인	구분(빈도)	회귀계수	F 값	유의도(p=)	R ²
부인의 주관적 만족		1.089	159.85	.0001****	.495(50%)
남편의 주관적 만족		.234	7.54	.006**	
친정부모의 지지정도	찬성 (175)	.270	5.18	.006**	
	보통 (96)	.011			
	반대 (39)	.000			
결혼유형	중 매 혼 (9)	.39	3.43	.01**	
	중매절충혼 (43)	.14			
	연애절충혼 (211)	.13			
	연 애 혼 (46)	.00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동질혼 (104)	.15	3.57	.05*	
	이질혼 (206)	.00			

* p<.05 ** p<.01 *** p<.001 **** p<.0001

〈표 3〉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요인의 공분산 분석 결과

(N=308)

독립변인	구분(빈도)	회귀계수	F 값	유의도(p=)	R ²
남편의 주관적 만족 결혼유형	중 매 혼 (9)	-.55	6.49	.0003***	.462(46%)
	중매절충혼 (43)	.21			
	연애절충혼 (211)	.27			
	연 애 혼 (46)	.00			
부인의 주관적 만족 출생지	동질혼 (146)	-.17	5.43	.02**	
	이질혼 (164)	.00			
	시댁부모의 지지정도				
시댁부모의 지지정도	찬성 (232)	-.24	2.83	.06*	
	보통 (58)	-.39			
	반대 (19)	.00			

* p<.05 ** p<.01 *** p<.001 **** p<.0001

경제적 지위, 출생지는 이질혼을 한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3. 결혼 전 자원의 보상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에 있어서 외모가 매력적일수록, 부모가 찬성한 경우, 성격이 긍정적일수록, 남편이 근대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경우, 연애 절충혼이거나 연애혼일 경우, 부인이 여성성일 경우, 역할기대가 높을수록, 배우자에 대해 주관적으로 인지한 만족감이 높을수록 부인과 남편 모두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한편 남편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보상은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4. 결혼만족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결혼 전 변인은 부인과 남편의 주관적 만족이며 그 다음이 부모의 지지, 결혼 유형이었다. 전체적으로 배우자 선택시 교환되는 자원의 동질성과 보상에 의한 결혼만족도 설명력은 부인 49.5%, 남편 46.2%로서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논의 해 보면,

첫째, 우리나라 도시부부는 결혼 전 자원을 교환함에 있어서 동질성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는데 개인은 최소한 자신과 유사한 자원을 가진 사람과 결혼함으로써 대가를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하는 교환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자신과 유사한 가치나 생활 경험을 선호함으로써 동질적인 관계에서 친밀감이 주는 보상과 동질혼을 추구하도

록 하는 사회 규범, 부모로부터의 압력을 수행함으로써 규범의 수행자에게 부여되는 보상을 최대로 하고자 하는 개인적·사회적·심리적 양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연령은 절대 다수가 남편이 연상이고 부인이 연하였는데 이는 남녀 결혼 연령에 대한 사회 규범은 여전히 강력한 통제기제임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한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이질혼이 증가하는 것은 현대화·산업화에 따라 교육 수준이나 개인의 능력에 따라 계층 변이가 가능하게 되면서, 특히 중산층으로의 주관적 귀속의식(한상진, 1987)이 강한 우리나라의 경우 계층간 이질혼은 더 이상 대가로 작용하지 않음을 시사해 준다.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이질혼이 증가하는 이유는 여성이 상향혼을 추구하기 때문이거나, 여성의 하향혼은 배우자의 현재 사회·경제적 지위보다는 미래에 더 나은 보상을 줄 수 있다고 인지한 보상이 불균등한 교환을 하게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는 현재 보다는 미래에 보다 나은 결과가 보장되는 대안을 선택한다는 사회교환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배우자 선택은 동질성을 추구하고 있으나, 결혼만족도는 객관적 동질성 보다 신체적 매력, 성격, 가치관, 역할, 주관적 만족 등의 개인적·심리적·상호작용적 보상 자원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 개인적·상호작용의 보상 자원이 결혼만

족도를 예측함에 있어서 주요 변인임을 알게 한다. 또한 결혼만족도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결혼 전 자원은 주관적 만족도로 나타나 자원에 대한 객관적 평가보다는 각 개인이 이를 어떻게 인지하느냐 하는 것이 결혼만족도와 더 크게 관련됨을 알 수 있으며, 결혼 생활은 결혼 당사자의 행복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결혼에 대한 의미가 변화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의사에 따라 선택을 하더라도 부모의 동의를 받은 후에 결혼을 결정하는 절충혼 방식을 대부분 추구하고 부모의 지지나 결혼 유형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배우자 선택에서 뿐만 아니라, 결혼 후에도 부부 관계의 만족도에 끼치는 부모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또한 개인이나 사회가 아니고 가족이 배우자 선택의 의사결정 단위로서 행동하는 내재적 원칙이라는 가족전략 개념(Tilly, 1983)으로 볼 수 있는데, 가족 특히 부모에 의해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며 부모의 의견에 불일치할 경우 갈등을 내포하게 되므로 부모와의 갈등은 결혼만족도에 대가로 작용하여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특히 친정부모의 반대가 많고,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전통적으로 남성은 하향혼을, 여성은 상향혼을 추구해 왔기 때문에 자녀가 사회적 조건이나 규범에서 이탈된 하향혼을 하게 되었을 때 남성보다 여성의 부모는 더 많은 반대를 하게 되고, 부모가 반대한 결혼을 한 부인은 결혼 후 결혼생활의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정서적 지지자인 부모와의 대화 단절, 친정과의 유대감 상실의 대가로 인해 결혼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흥미로운 것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덜 고려되고,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의 선택을 찬성한 점, 절충혼이 대다수이며 연애 절충혼이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결과로 볼 때, 부모들은 자녀 결혼에 대해 심한 통제기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나 자녀는 자신의 배우자 선택에 대해 부모의 뜻을 존중하려 하며 이러한 내재화된 효의식이 결혼만족도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세째로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이질혼에서

남편이 부인보다 지위가 높을 경우 부부 모두 결혼만족도가 높은 현상은 남성은 자신보다 우월하지 않은 여성에게, 여성은 자신보다 우월한 남성에게 가장 안정감을 느낀다는 교환이론적 관점의 사회비교이론(Makosky, 1983)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부인이 비취업 여성일 경우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보아 여성의 취업은 남성에게 더이상 대가가 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성에게 공동 부양책임을 기대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배우자 선택에서 남성은 비경제적 자원을, 여성은 사회·경제적 자원을 선호하지만 교환이론적 관점의 독특한 선택 양상은 남녀 평등성을 향한 움직임으로 변화되어 가는 경향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출생지의 이질혼을 한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은 출생지의 이질성이 대가로 작용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결과로서 출생지는 다르더라도 성장지가 같아 지리적으로 근접한 경우 교제빈도와 의사소통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서로 동질화 되어지고 결혼 전의 이러한 보상이 결혼 후에 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여겨지며, 성장지의 동질혼 비율이 높은 결과가 이러한 해석을 가능케 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볼 때, 우리나라 결혼 초기 도시부부의 배우자 선택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내혼 규범은 완화되고, 개인적 자원의 균등성을 추구하는 동질혼이 증가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의 배우자 선택과 결혼은 서구의 개인적이고 우애적인 결혼 규범과 부모의 영향력이 공존하는 수정된 자유혼 즉, 절충혼의 과도기적 시점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배우자 선택시 동질성을 추구하고, 교환 자원의 동질성과 보상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결혼초기 도시부부의 배우자 선택에 사회교환이론이 적용됨을 알 수 있다. 배우자 선택시 교환되는 결혼 전 자원에 의한 부부 결혼만족도 설명력은 높았는데 이는 배우자 선택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표집대상과 지역을 의도적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으므로 그 결과는 잠정적일 수 밖에 없어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자료의 제약성 때문에 연구결

과가 다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혀둔다.

【참고문헌】

- 1) 강은령(1989), 『부부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취업주부/비취업주부를 중심으로-』, 이대석사학위논문.
- 2) 강호철(1984), 『대학생들의 결혼관에 대한 조사 연구-진주지방 전문대학생을 중심으로-』, 이대석사학위논문.
- 3) 고순자(1981), 『미혼여성의 직업경험이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 4) 김경숙(1985), 『부모가 자녀의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 관동대 논문집, 39-57.
- 5) 김명순·이주옥(1988), 『성과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포항지역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6(4), 161-172.
- 6) 김명자(1990), 『교환 이론적 관점에서의 가족학 연구에 대한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28(3), 147-160.
- 7) 김미숙·김명자(1990), 『도시부부의 결혼안정성 및 그 관련변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1), 171-183.
- 8) 김용학·김진혁(1990), 『지역감정의 관계적 분석: 결혼 연결망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학회지 제22집, 65-86.
- 9) 김일명·김명자(1989), 『기성세대와 대학생의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 비교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1), 59-77.
- 10) 김혜선·김영희(1983), 『배우자 선택과 성의식에 관한 연구(I)-일본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 107-125.
- 11) 김혜선·김영희(1984), 『배우자 선택과 성의식에 관한 연구(II)-한국 여대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논문집 3집, 703-721.
- 12) 김혜선·김영희(1986), 『한국·미국·일본 여대생의 배우자 선택과 성의식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논문집 제 5집, 447-471.
- 13) 김혜선·신양재(1988), 『대학생의 결혼관 및 성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논문집 제 8집, 67-111.
- 14) 김혜선(1991), 『배우자선택 연구에 관한 고찰』, 한국방송통신대학논문집 12집, 493-513.
- 15) 김혜선(1992), 『배우자선택과정과 결혼적응도간의 관계』, 숙명여대박사학위논문.
- 16) 박미혜(1991), 『한국의 교육계층으로 본 배우자 선택』, 가족학논집 3집, 21-29.
- 17) 백남희(1986), 『결혼적령기 남녀의 배우자 선정 조건 -서울을 중심으로-』, 이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8) 서광희·조병은(1992), 『농촌부부의 배우자 역할평가와 결혼만족도』,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9) 신혜성(1988), 『한국인의 결혼구조변화에 대한 분석-1935년-1985년 인구 센서스 자료의 15-34세 연령집단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20) 안해옥(1987), 『미혼남자 대학생들의 결혼관에 대하여-광주직할시 의학계 미혼 남자대학생을 중심으로-』,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21) 양명숙(1991), 『부모전환기에서의 결혼만족도 연구 -한국의 첫자녀와 둘째 자녀를 출산하는 부모를 중심으로-』, 가족학논집 3집, 31-55.
- 22) 윤달원(1978), 『한국 여대생들의 성공적인 결혼관 지도를 위한 일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3) 이동원(1988), 『도시부부의 결혼의 질에 관한 연구』, 연대박사학위논문.
- 24) 이미숙(1989), 『한국에서의 결혼만족연구에 대한 고찰 및 평가』, 생활과학연구논집 10(1), 27-71.
- 25) 이선주(1988), 『기혼여성의 결혼관과 그에 관련된 결혼만족도』, 이대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 26) 이은죽(1982), 『한국여성노동자의 혼인관과 직업관』, 아세아여성연구, 181-223.
- 27) 이용문(1982), 『농촌부락의 결혼실태와 태도에 관한 연구 -3개 부락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8) 정기원 · 이상영(1992), 『부부의 동질성이 결혼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편, 92-107.
- 29) 정 영(1981), 『일부 도시지역 미혼근로자 여성의 성에 대한 지식 및 태도 조사』, 조선대 석사학위논문.
- 30) 정현아(1984), 『여대생의 자아실현성에 따른 결혼관에 관한 연구-서울시를 중심으로-』,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 31) 최규련(1988), 『한국 도시부부의 결혼만족도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 32) 한경혜(1990), 『산업화와 결혼 연령 변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가족진략의 관점에서』, 한국사회학회지 제 24집, 103-120.
- 33) 한상진(1987), 『한국 중산층의 개념화를 위한 시도: 중산층의 규모와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지 제 21집, 121-148.
- 34) 홍준숙(1987), 『미혼남녀의 결혼관에 관한 연구』, 효성여대 석사학위논문
- 35) 김양희(1992), 『가족관계학』, 수학사, 122-162.
- 36) 이효재(1993), 『가족과 사회』, 경문사, 164-198.
- 37) 최재석(1983), 『한국가족제도사 연구』, 일지사.
- 38) 가족학(1993), 『한국가족학연구회편』, 하우, 169-200, 287-315.
- 39) 대한가정학회편(1990), 『가정학연구의 최신정보 III -아동학·가족학-』, 교문사, 173-183.
- 40) 한국가족학연구회편(1991), 『가족학 연구의 이론적 접근』, 교문사, 43-58.
- 41) 한국가족학연구회편(1992), 『현대사회와 가족문제』, 서울특별시, 22-33
- 42) 한국갤럽조사 연구소(1993), 『한국 미혼여성의 배우자 선택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갤럽조사 연구소, 1993. 9.21. 경향신문.
- 43) Adams, Bert N.(1979), 『Mate Selection in the United States』, *Family Interaction*, 259-265.
- 44) Albert, Steven M.(1991), 『Caregiving Daughters' Perception of Their Own and Their Mothers' Personalities』, *The Gerontologist* 31(4), 476-482.
- 45) Atkinson, Maxine P. & Becky L.(1985), 『Marital Age Heterogamy and Homogam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83-727.
- 46) Cate, Rodney M., Sally A. LLoyd, Edgar Long (1988), 『The Role of Rewards and Fairness in Developing Premarital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43-452.
- 47) Glenn, Norval D. (1984), 『A Note on Estimating the Strength of Influences for Religious Endogam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725-727.
- 48) Heaton, Tim B. and Stan L. Albrecht(1991), 『Stable Unhappy Marriag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747-758.
- 49) Hyunju, Kim(1992), 『Gender Role Equity and Marital Satisfaction Among Korea Couples』, *Korea Journal of Population and Development*, 99-120.
- 50) Jones, Mary Evelyn et al(1979), 『Female Campus Values in Mate Selection: A Replication and Expansion』,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 51) Jorgensen, Stephan R. (1973), 『Social Class Heterogamy, Status Striving and Perceptions of Matital Conflicts: A Partial Replication and Revision of Pearlín's Contingency Hypothe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53-661.
- 52) Lee, Gary R. and Lorene Hemphill Stone(1980), 『Mate Selection Systems and Criteria: Variation According to Family Structur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19-323.
- 53) Lee, Sharon Mengchee(1988), 『Intermarriage & Ethnic Relations in Singapor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255-265.
- 54) McKenry, Patrick C., Rosemary Boling & Peter J. Stein(1984), 『The Self-Advertisement Approach to Dating Male-Female Differences』, *Family Relations*, 587-592.
- 55) Makosky, Vivian Parker & Barbara K. Sholly (1983), 『The Mating Gradient: Alive and Well

- on the College Campus』, *Psychological Association*.
- 56) Mathes, Eugene W.(1975), 『The Effects of Physical Attractiveness & Anxiety on Heterosexual Attraction Over a Series of Five Encount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 57) Murstein, Bernard I., Mary Cerreto & Marcia G. McDonald(1977), 『A Theory and Investigation of the Effect of Exchange-Orientation on Marriage & Friendship』,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3-549.
- 58) Murstein, Bernard I. (1980), 『Mate Selection in the 1970'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67.
- 59) Nye, F. Ivan(1980), 『Choice Exchange and The Family』,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1-14.
- 60) Roach, Arthur J., Larry P. Frazier and Sharon R. Bowden(1981), 『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 Development of Measure for Intervention of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7-545.
- 61) Schaupp, Diane S. et al(1986),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Prediction of Marital Adjustment for Men and Women』, *Psychological Association*.
- 62) Schoen, Robert & Gillian Stevens(1988), 『Linguistic Inter-marriage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267-279.
- 63) South, Scott J.(1991), 『Sociodemographic Differential in Mate Selection Referenc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928-940.
- 64) Surra, Catherin. A(1990), 『Research and Theory on Mate Sele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74.
- 65) Wooldredge, John & Robert Schoen(1989), 『Marriage Choices in North Carolina and Virginia 1961-71 and 1979-81』,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5-481.
- 66) Xiaohe, Xu & Martin King Whyte(1990), 『Love Matches and Arranged Marriages: -A Chinese Replic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709-722.
- 67) York, John Richard et al(1979), 『Campus Values in Mate Selection: A Replication and Expansion』,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